

순천시, 2025년을 빛낸 10대 정책 하이라이트 발표

순천시가 2025년 순천을 뜨겁게 달군 '10대 정책 하이라이트'를 공개했다. 시민 체감도·지역 파급력·정책 혁신성을 반영해 선정된 이번 하이라이트는 단순한 연말 결산이 아닌, 순천이 어떻게 도시의 체질을 바꾸고, 시민의 삶의 질을 바꿔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순천만국가정원

코스트코·여수MBC가 선택한, 남해안남중권 경제·소비 중심도시

◇ 코스트코·여수MBC가 선택한 도시, 남해안남중권 경제 소비 중심 도시

① 코스트코, 여수MBC가 선택한 도시, 순천 중심 산업 재편!

가장 먼저 눈여겨 볼 것은 한화오션에 코텍, 코스트코, 여수MBC 등 각각 조선·물류유통·방송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순천에 동지를 틀었다는 점이다. 특히 글로벌 유통기업 코스트코의 입점은 광주·전남 최초로, 연 1,300만 명 생활인구 유입과 250여 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콘텐츠 기업으로의 변신을 준비 중인 여수MBC 또한 순천의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연계, 제작·유통·마케팅을 아우르는 남해안권 콘텐츠 허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② 콘텐츠 기업 37개 동지를 틀다! 꽃피는 문화도시, 꿈틀대는 원도심!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문화콘텐츠 산업 확장을 위해 관련 기업 37개소를 유치해 불꺼진 원도심의 빈 공간을 채웠다. 순

가치 농업 혁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으로 기획-연구-실증-사업화-인력양성까지 이어지는 그린바이오 클러스터가 가동됐다. 2027년까지 지식산업센터와 생산시설 구축을 구축해 고부가가치 농업혁신을 이끌 전망이다.

◇ 내륙과 바다의 국가정원을 모두 품은 세계 유일 생태치유도시

⑤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IUCN 가입, 세계적 생태리더로 도약

UN 옵서버 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가입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참석으로 순천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

순천은 IUCN에서 급속한 산업화에 대한 해답으로 채택한 자연기반해법(NbS)을 가장 대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도시로 인정받았으며, 이는 한국 건강지수 호남권 1위, 지속가능발전 ESG평가 기초지자체 1위라는 분명한 지표로 입증되고 있다.

위'임을 입증했다. 건전재정의 기틀 위에 가든머니를 더한 결과 전시민에게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면서 품품 얼어붙은 연말 지역경제에 훈풍을 일으켰다는 평가다. 아울러 순천사랑상품권은 최대 15% 할인 판매에 힘입어 연 2,070억 원이 판매되었으며, 가맹점도 전년 대비 1,200여 개소 늘어나며(14,981개소) 지역 소비 회복을 뚜렷하게 견인했다.

⑨ 종합 스포츠파크 공모 선정, 노후시설 미래형으로 획기적 전환

순천의 낙후된 체육시설을 미래형으로 전환할 종합스포츠파크 사업도 국비 40억 원 확보로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순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부터 전지훈련 유치까지 아우르는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⑩ 공공자원화시설 승수, 연향들 도시 개발 첫 삽! 명품 정주환경 조성 단력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은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폐기물을 돈이



오산정만대에서 바라본순천만습지

내륙과 바다의 국가정원을 모두 품은 세계 유일 '생태치유도시' 민생회복지원금에서 미래 인프라까지, 시민 체감 명품 정주도시

천은 이들의 창작을 뒷받침할 905억 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조성하는가 하면, 지속가능한 인재풀이 되어줄 총 300억 원 규모의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 사업에 뛰어들어 2026년 예산에 국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한 상황이다.

순천 고유 IP인 '루미몽이'를 고도화해 캐릭터의 경제적 가치를 키우는 한편, 대형 IP와의 협업 콘텐츠 행사(올덴가, 원츠)를 통해 수시로 외부 생활 인구를 유입했다. 특히 차량 중심이던 도심을 '잔디로드'로 바꾼 주말의 광장에는 약 15만 명이 찾으며, 원도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③ 첫 인공위성 '순천SAT' 우주경제도시 전환의 분기점을 열다

2027년 누리호 6호기에 순천 첫 인공위성 '순천 SAT'을 탑재하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호남권 최초 위성개발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2026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선정으로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교통·안전·환경 전반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도시서비스 혁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④ 그린바이오 육성지구 지정, 고부가

⑥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내륙과 해양정원 모두 보유한 세계 유일 도시

또한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에타 조사대상 사업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면서 순천은 내륙정원과 해양정원을 모두 보유한 세계적 생태도시로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⑦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치유 도시 조성

순천만-국가정원-원도심을 잇는 동천 그린웨이 조성하고 신대천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물'의 도시'로 도시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한편, 체류형 여행브랜드 실랑계 론칭, 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 팔마유소년 승마대회 첫 개최 등으로 치유가 일상에서 스며드는 순천형 치유도시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 민생회복지원금에서 미래 인프라까지, 시민이 체감하는 '명품 정주도시'

⑧ 가든믹스(정원경제)가 만든 민생회복지원금, 순천경제에 새바람 일으켜

국가정원은 3년 연속 400만 명 이상 방문, 2025년 기준 110억 원 수익을 달성하며 정원이 지역경제에 '황금알을 낳는 거

되는 에너지로 전환하는 친환경 복합시설로 조성된다.

본격 착공을 눈앞에 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연계한 미래 문화·관광 거점으로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한편,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의료·복지 분야 성과도 두드러졌다. AI 안부살핌을 통해 시민 3천여 명을 지원하며 고독사 위험자를 2년 연속 구조했고, 성가톨릭 병원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돼 24시간 365일 전문 응급의료 체계를 갖췄다. 기록적인 폭염에는 폭염대책반 가동과 예비비 10억 원 선제 투입으로 경로당 냉방비 연장 지원 등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순천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인접 도시들과 다르게 끊임없이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며 새로운 활로를 찾아왔으며, 그 결과 순천은 전남 동부권을 넘어 남해안남중권을 이끄는 대표 도시로 자리잡았다"며 "이제 순천의 문화·경제·생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세계적 치유도시로 힘차게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경성인 기자



지난10월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 '올덴가'의 시그니처캐릭터 올덴가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I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북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향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키무스데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 중도금 무이자 +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무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세무 GS 건설 | (주)한화/건설 | HDC 현대산업개발